

아시아영화연구소 ·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국내외 영화제의 흐름과 BIFF

- 성찰과 전망 -

1부 세계영화제 변화와 전망

‘국제영화제와 관련자들 : 글로벌과 로컬’

발표 | 디나 이오르다노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토론 | 남인영 (동서대학교)

2부 한국영화제의 위상과 역할 및 비전

‘최근 한국 영화제의 동향과 전망’

발표 |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프로)

토론 | 김이석 (동의대학교)

3부 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와 성찰

‘로컬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 BIFF에 대한 성찰’

발표 | 손성우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토론 | 최용석 (부산외국어대학교, 영화감독)

4부 종합토론

토론 | 윤여진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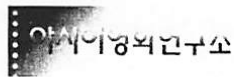
박정민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

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 오후 2:00 ~ 5:50

장소 | 예술공간 닷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35)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PNU Film Institute



한국연구재단

공동주관 ○ 아시아영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후원 ○ 부산영상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2017 아시아영화연구소 ·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추계학술회의

국내외 영화제의 흐름과 BIFF

- 성찰과 전망 -

아시아영화연구소 ○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국내외 영화제의 흐름과 BIFF : 성찰과 전망

1부 세계영화제 변화와 전망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 글로컬과 로컬'
발표 | 다나 이오르다노바 (세인트 옌스루스 대학교)
토론 | 남인영 (동서대학교)

2부 한국영화제의 위상과 역할 및 비전
'최근 한국 영화제의 등장과 전망'
발표 | 조지훈 (부산국제영화제 부장행정위원장, 프로그래머)
토론 | 김아침 (동덕대학교)

3부 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와 성찰
'모질이라는 아태유로기질 넘어 ○ BIFF에 대한 성찰'
발표 | 손영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토론 | 최용석 (부산외국어대학교, 영화감독)

4부 종합토론
토론 | 윤여진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박정민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과정)

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 오후 2:00 - 5:50
장소 | 예술공간 닷 (부산시 금정구 금성로 35)

공동주관 ○ 아시아영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후원 ○ 부산영상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 오후 2시

장소 : 예술공간 닷(DOT)

주관 : 아시아 영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후원 : 부산영상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이 행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974)

■ 진행 순서 ■

좌장 : 강 내 영 (아시아영화연구소장 / 경성대학교)

축사
환영사

최 윤 (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정 병 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소장)

제 1 부 : 기초 강연 - 세계 영화제의 변화와 전망

Film Festivals and Stakeholders: Global and Local
(국제 영화제와 관련자들: 글로벌과 로컬)

2:00~3:00

디나 이오르다노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토론 : 남 인 영 (동서대학교)

학예공연 : 가야금 연주

3:20~3:40

공연 : 최 경 철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이수자)

제 2 부 : 한국 영화제의 위상과 역할 및 비전

최근 한국 영화제의 동향과 전망

3:40~4:40

조 지 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토론 : 김 이 석 (동의대학교)

제 3 부 : 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와 성찰

로컬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성찰 5:00~5:30

손 성 우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토론 : 최 용 석 (영화감독 / 부산외국어대학교)

제 4 부

종합 토론

5:30~5:50

토론 : 윤 여 진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토론 : 박 정 민 (부산대 대학원 예술문화영상학과 박사과정)

레드카펫은 잊어라: 영화제 심사위원은 무엇을 하는가

디나 이오르다노바

영화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레드 카펫, 여배우의 화려한 드레스, 아름다운 스타들, 사진 요청... 온통 화려함일 것 같지 않은가?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수행하는 영화제에 연구는 심사위원단 진행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그 세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제 심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상세했다가는 소위 '선진국 증후군'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화제 심사는 힘든 과정이다.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Yamagat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는 1989년에 처음 열렸다. 최근 몇 년 간 나는 세계의 다양한 영화제 - 여성 영화제, 단편영화제, 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적인 A등급 영화제 등 - 에서 심사위원으로 종사해온 바 있다. 그 중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야마가타 영화제(YIDFF)에서의 심사위원직은 왜 야마가타가 뛰어난 큐레이션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것은 값진 경험인 동시에, 영화 스타나 화려함을 가장한 진부한 클리셰와는 동떨어진 경험이기도 했다.

이번 야마가타 영화제는 우수한 다큐멘터리들로 이루어진 라인업을 선보였고, 이는 영화제에서 심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영화로 인한 고문(Torture by movies)

심사위원은 긴 시간 동안 캄캄한 영사실에서 영화를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게 봐야 한다. 물 몇 통과 음료 정도는 반입이 되지만 음식은 반입이 불가하다. 그동안 외부에서는 영화제를 즐기는 사람들과 담론들 그리고 영화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그 세계에 속할 수 없다. 심사위원에게 프로그램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경쟁부문의 영화를 봐야만 한다. 영화제를 즐기는 것은 의무적인 영화 시청이 끝난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어떤 영화제들은 프로그래머가 선별한 영화들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영화제에서 나는 종종 영화제 심사가 영화로 고문하는 과정으로 느껴진다. 이것

은 비단 야마가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야마가타 영화제 역시 1/4정도의 프로그램이 3시간 이상 길이의 영화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곤함이 심사 과정에서 서서히 퍼져오르는 것은 당연했다. 5일 동안 40시간 지속되는 심사는 양적으로만 본다면 그리 많은 양의 업무가 아닐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심사위원을 녹초로 만들며, 심지어 영화들이 끝난 후에도 정서와 지각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대부분의 영화제는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보조자(a specially appointed assistant)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보조자가 진정으로 책임지는 역할은 심사위원들을 감독하는 일이다. 심사위원들이 스크리닝 룸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기나긴 마라톤을 완주하는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테리 맥칸(Terry Macann)이 없는 영화 “마인더” 같은 상황이라고나 할까.*

아마도 가장 힘든 점은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당신이 지금 막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를 오가는 동안에 전반적인 주제와 생각들 그리고 문제의식들을 통하여 이제껏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초대하는 영화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방금 본 영화로 인하여 머릿속에 침투하는 생각과 이미지, 감정과 인상에 휩싸인 채 객석을 떠나게 될 것이다.

심사위원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사카 센난 지역의 석면 중독에 걸린 일본근로자들의 8여 년 간의 삶을 일대기적으로 다룬 4시간짜리 영화를 보았다(<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가즈오 하라 감독)). 일련의 도덕적 문제들이 제기되며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영화였다. 하지만 다음 심사는 90분 안이었다. 다음 영화를 보기 전에 머릿속을 깔끔히 비워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영화는 심사위원의 동일한 심사 자세로 심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런 식으로 몇 번이든 머릿속을 비워내야만 한다.

합의로의 과정(Building consensus)

심사위원단은 영화제를 돌면서 이루어진 우정 어린 집단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서로 잘 알지 못하며 배경도 다르고 출생지도 상이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영화제 심사의 첫 째 날에만 만나고, 심사가 끝난 경쟁부문 행사의 마지막 날 이후에는 결코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단 며칠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심미적 선호를 결정하는 모든 미학적 측면에 닿아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동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각자가 지닌 윤리적, 정치적 원칙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을 동반하게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심사가 의미 있게 작동하려면, 심사위원단 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자아가 조금 덜 세다든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면 한결 도움이 된다.

YIDFF에서 심사위원단은 나를 포함해 4명이었다. 즉 불가리 태생의 영국 학자인 필자, 칠레 태생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 실험적인 일본인 아티스트 그리고 인도의 저명한 카메라 감독 등으로 구성된 여자 1명, 남자 3명이었다. 여기에 레바논의 유명한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병환으로 인해 심사직을 취소해야만

했다. 만약 그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이 왔다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는 않았을까? 모든 개별적 위원들은 개인적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세계를 보는 시야를 통해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기여하게 마련이다.

심사위원단은 40시간에 걸친 다큐멘터리 상영을 시청해야 했고, 이후로는 5개 부문에 걸쳐 수여되는 영화상 수상작을 결정하기 위해 3시간 동안의 논의를 이어갔다. 쇼트 리스트와 순위 매기기 등의 방법들이 활용됐다. 심사위원으로서 좋아하는 영화를 순위표에 올리는 것은 오히려 쉬운 부분에 해당했다. 가장 집중적인 논의는 개별적 순위표에 올라있지만 만장일치를 얻지는 못했던 영화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심사는 타협이 아니라 합의로 귀결되며 끝난다.



야마가타 심사위원단이 올해 수상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영화제 심사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양한 나이와 성별을 가지며 문화적, 사회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섬세한 논의의 과정에 다름아니다. 결코 이 과정이 부드럽게만 진행되는 법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양한 심사위원직 수행을 통하여 나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끼리 서로 의미있게 성공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관객들에게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영화를 소개하는 것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 "마인더(Minder)"는 1970년도부터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이다. 테리 맥칸(Terry Macann)은 전직 권투선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상대역 아서(Auther)의 '마인더(minder, 보디가드로 고용된 감시인)' 역할을 했다.